

새내기 간호사 배출 2만명 넘어섰다

올해 국가시험 2만615명 합격 ... 수석합격 김유진

2019년도 제59회 간호사 국가시험에 2만615명이 합격해 96.4%의 합격률을 나타냈다. 합격자 수가 올해 처음으로 2만명을 넘어섰다.

한국보건교육인국가시험원은 지난 1월 25일 시행된 제59회 간호사 국가시험에 최종 2만1391명이 시험을 치렀으며, 이중 2만615명이 합격해 96.4%의 합격률을 기록했다고 2월 18일 밝혔다.

최근 간호사 국가시험 합격자 수 및 합격률은 △2015년 = 1만5743명 (96.7%) △2016년 = 1만7505명 (93.8%) △2017년 = 1만9473명 (96.4%) △2018년 = 1만9927명 (96.1%) △2019년 = 2만615명 (96.4%)이다.

여학생의 경우 응시생 1만8420명 중 1만7772명 (96.5%), 남학생의 경우 응시생 2971명 중 2843명 (95.7%)이 합격했다. 남학생 합격자는 전체 합격자 중 13.8%를 차지했다.

남학생 합격자 수는 2010년 642명 (5.4%), 2011년 837명 (6.7%), 2012년 959명 (7.5%), 2013년 1019명 (7.8%), 2014년 1241명 (8.0%),

2015년 1366명 (8.7%), 2016년 1733명 (9.9%), 2017년 2134명 (10.96%), 2018년 2344명 (11.8%), 2019년 2843명 (13.8%)이다.

올해 간호사 국가고시 수석합격의 영예는 김유진(한림성심대) 씨가 차지했으며, 295점 만점에 281점(100점 만점 기준 95.3점)을 받았다.

합격 여부는 국시원 홈페이지(www.kuksiwon.or.kr) 및 모바일 홈페이지(m.kuksiwon.or.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국시원은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서도 응시자에게 합격여부를 통보했다.

한편 올해 국가시험은 전국 12개 지역, 33개 시험장에서 치러졌다. 시험장은 지난해 11개 지역에서 전남이 새로 추가돼 모두 12개 지역으로 확대됐다.

시험이 치러진 12개 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전북, 전남, 강원, 경남, 제주이다.

정규숙·이진숙 기자

창립 30주년 기념식 준비 주력

보험심사간호사회 총회 보험심사관리사 자격과정 운영

보험심사간호사회(회장 손순이)는 제22회 정기대의원총회를 2월 22일 서울아산병원 연구원 지하대강당에서 열고 올해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심의 확정했다.

보험심사간호사회는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아 오는 9월 기념식 및 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를 위한 준비에 주력하기로 했다.

보험심사관리사를 국가공인자격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보험심사관리사 자격과정 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할 예정이다. 심사평가체계 개선 관련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회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에 힘쓸 계획이다. 전문교육과정, 건강보험 연수회 등을 실시한다. 보험심사관리사 자격유지를 위한 보수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회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에 힘쓸 계획이다. 전문교육과정, 건강보험 연수회 등을 실시한다. 보험심사관리사 자격유지를 위한 보수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총회 개회식에서는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이 격려사를 했다. 회원들을 위한 시상식도 진행됐다. △공로패 = 최유영(성균관대 삼성강원병원 보험파트장) 유운경(조선대병원 진료비심사팀장) 김순애(경북대병원 심사과장) 한선희(단국대병원 심사파트장) △간사패 = 이상범(서울아산병원 교육수련부 과장) △장학증서 = 장이선(인제대 부산백병원) 최소영(분당서울대병원).

이진숙 기자 jslee@



한국나이팅게일기장수상자총회 총회 열려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기장 역대 수상자들의 모임인 한국나이팅게일기장수상자총회(회장 최정자)는 정기총회를 2월 19일 롯데호텔 제주 사롯데룸에서 열었다.

이날 총회에는 최정자 회장을 비롯해 전금자, 안상정, 전정희, 최영희, 최미자, 남상욱, 김조자, 이재주 회원이 참석했다.

회원들은 2019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심의했다. 그동안 나이팅게일 정신을 간호사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실시해온 '나이팅게일 이념교육'을 올해도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투철한 사명감으로 나이팅게일 정신을 실천하고 있는 간호현장을 방문해 간호사들을 격려하는 사업도 계속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 앞서 한국나이팅게일기장수상자총회 회원들은 제86회 대한간호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해 대의원들을 격려했다.

정규숙 기자 kschung@

최연옥 전 보건소장 홍조근정훈장 수상

최연옥 전 부산시 동구보건소장이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지난 37년간 공직에 몸담으며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했다.



최연옥 전 보건소장은 1981년 공직에 입문해 부산시 보건소 등을 두루 거쳤다. 2016년 서기관으로 승진하며 부산시 건강증진과장을 맡았고, 2017년 동구보건소장에 임명됐다. 2018년 6월 지방부서관으로 승진했으며, 지난 12월 말 퇴임하며 공직생활을 마무리했다.

동구보건소장으로 몸담으며 '현장에 담이 있다'는 슬로건 아래 구민 속으로 들어가 구민과 함께하는 각종 건강정책을 펼쳤으며, 부산시 보건소 사업 종합평가에서 최우

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부산시 최초로 치매안심센터를 개소해 운영함으로써 전국의 벤치마킹 대상이 됐다.

현재 부산시간호사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및 대통령 표창을 받았으며, 복지대상사 공로부문을 수상했다.

한편 부산시간호사회는 2월 14일 열린 이사회에서 최연옥 전 보건소장의 수상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진숙 기자 jslee@

올해 간호사 국시 '남자 합격자' 2843명

전체 합격자 중 13.8% 차지 ... 남자간호사 총 1만7863명

올해 치러진 간호사 국가시험에 남자 2843명이 합격했으며, 전체 합격자 중 13.8%를 차지했다. 이로써 우리나라 남자간호사 수는 총 1만7863명으로 늘어났다.

연도별로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남자 수 및 전체 합격자 중 비율은 다음과 같다.

△2004년 = 121명 (1.1%) △2005년 = 244명 (2.1%) △2006년 = 219명 (2.1%) △2007년 = 387명 (3.2%) △2008년 = 449명 (4.0%) △2009년 = 617명 (5.3%) △2010년 = 642명 (5.4%) △2011년 = 837명 (6.7%) △2012년 = 959명 (7.5%) △2013년 = 1019명 (7.8%) △2014년 = 1241명 (8.0%) △2015년 = 1366명 (8.7%) △2016년 = 1733명 (9.9%) △2017년 = 2134명 (10.96%) △2018년 = 2344명 (11.8%) △2019년 = 2843명 (13.8%).

남자간호사는 1962년 처음으로 면허를 취득했으며, 2005년부터 크게 늘어나기 시작했다. 2009년 617명의 남자간호사가 탄생하며, 한 해 배출 인원

500명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2013년부터 남자간호사 연 배출 인원 1천명 시대가 열렸다.

2017년에는 연 배출 인원이 2천명을 넘어섰다. 우리나라에서 면허를 받은 남자간호사가 배출된 지 55년만인 2017년에 처음으로 2천명을 돌파했으며, 전체 합격자 중 남학생이 차지하는 비율 또한 처음으로 10%를 넘어섰다.

한편 연도별 남자간호사 수(누적인원)는 다음과 같다. 2016년에 전체 남자간호사 수가 1만명을 돌파했다.

△2004년 = 829명 △2005년 = 1073명 △2006년 = 1292명 △2007년 = 1679명 △2008년 = 2128명 △2009년 = 2745명 △2010년 = 3387명 △2011년 = 4224명 △2012년 = 5183명 △2013년 = 6202명 △2014년 = 7443명 △2015년 = 8809명 △2016년 = 1만542명 △2017년 = 1만2676명 △2018년 = 1만5020명 △2019년 = 1만7863명.

정규숙·이진숙 기자

정신전문간호사 역량강화 주력

정신간호사회 총회 박애란 회장 선출

정신간호사회는 제15회 정기대의원총회를 2월 23일 서울시청 시청사 대회의실에서 개최하고 신임 회장으로 박애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예방홍보부장(사진)을 선출했다.

제1부회장에는 김숙자 전 성안드레아병원 간호부장, 제2부회장에는 안영미 백석대 간호학과 교수(천안시지사에방센터장), 감사에는 박경덕 나눔과행복병원 통합정신재활센터부장, 양 수 경복대 부총장을 선출했다.

정신간호사회는 올해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정신전문간호사의 역량강화 및 권익향상을 위한 사업에 주력하기로 했다.

회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에 힘쓸 계획이다. 정신간간간호사 수련과정을 지원한다. 중독정신간호사 자격교육, 보수교육, 수퍼바이저 교육 등을 계속 실시할 예정이다. 정신간호 관련 보수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 및 교육 활동을 진행한



올해 예산은 2억3047만원 규모로 확정했으며, 정신간호사회 회비는 동결했다.

총회 개회식에서는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이 격려사, 이광자 전 정신간호사회장이 축사를 했다. 우수회원 및 임기를 마치는 임원들을 포상했다.

△자랑스런 정신간호사상 = 강호숙(강릉울곡병원 과장) 주순오(정신요양시설 구원선 신생원 정신간간간호사) △표창장 = 윤미경(전경기도정신간호사회장) 이옥자(전대전충청정신간호사회장) 차진경(전 전북정신간호사회장) 김영선(전 부산울산경남정신간호사회장).

이진숙 기자 jslee@

간호사신문		발행인·편집인 신 경 립 인쇄인 김 갑 기	
1976년 12월 31일 창간 / 등록번호 : 서울대06368			
◇대한간호협회 (02)2260-2511 서울시 중구 동호로 314 koreanurse.or.kr		◇간 호 사 신 문 (02)2260-2571 FAX (02)2260-2579 독자주소변경 (02)2260-2571 nursesnews.co.kr	
시·도 간호사회		산 하 단 체	
서울시 (02) 853-5497	충청북도 (043) 272-1573	병원 간호사회 (02) 2261-1711	
부산시 (051) 253-3824	충청남도 (041) 509-6348	보건간호사회 (02) 525-7318	
대구시 (053) 756-8485	전라북도 (063) 256-3390	보건진료소협회 (02) 2296-7677	
인천시 (032) 441-2825	전라남도 (061) 277-2292	보건교사회 (02) 527-3360	
광주시 (062) 227-7561	경상북도 (053) 743-2721	마취간호사회 (010-2061-6471)	
대전시 (042) 535-0739	경상남도 (055) 282-6006	보험심사간호사회 (02) 2263-1959	
울산시 (052) 258-2311	제주도 (064) 747-3811	산간간호사회 (02) 716-9030	
경기도 (031) 252-0351	군 진 (042) 878-4590	가정간호사회 (02) 2267-5688	
강원도 (033) 263-6417		정신간호사회 (02) 425-1271	
		노인간호사회 (052) 230-0735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편집윤리선언을 준수합니다.

BEST
간호사님께 주고 싶은 책!

기억과 기록이 만났을 때

달나라로 간 소신

심쿵 & 감동

평범한 삶이 주는 행복 메시지

처음에는 그저 가계도나 그려주겠다는 생각이었다. A4 용지 서너 장이면 족할 것으로 짐작했다. 그러던 것에 어린 딸들 읽기 쉽게 하겠다고 살을 붙이고, 이야기를 만들어 보았다. 지극히 개인적 소사(小事)에 어설문체(文體)라 무엇을 어찌할 바가 아니었는데 "교육칼럼보다 재미있다"는 주변의 지나가는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였다. 소신을 뒤로하고 달나라로 간 것이다.

_ 저자 서문에서

'가족 가치'에 대한 든든한 인식

《달나라로 간 소신》은 작가가 신문기자로서의 비판적 공음과 현실주의 사회의식을 표방해도 오히려 정서적으로 푸근하고, 설명하기 힘든 심미적 아름다움을 은연중에 거느린다. '가족 가치'가 빛어내는 건강한 사람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 때로는 그 사랑이 문맥의 뒤에서 또는 행간의 여백에서 향훈(香薰)처럼 스며든다. 그게 바로 이 산문집의 매력이라 할 수 있다.

_ 박인기 경인교대 명예교수 발문에서

이낙진 지음
지식과 감성 / 1만3000원
유명서점·인터넷서점 판매

NAVER 을 검색하세요.

KYOBO 교보문고

주요 일간지 북섹션 추천도서

- 따뜻한 글이 뭉클함을 주기도 하지만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기도 한다.
문화일보 | 2018.10.12
- 어린 날에 대한 회상기를 비롯해 건강한 가족 가치를 담고 있는 산문이다.
조선일보 | 2018.10.27
- 저자가 풀어내는 가족 이야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이야기다.
세계일보 | 2018.11.3
- 살아가는 방식은 다르지만 모두의 일상은 존귀하다는 평범한 건리를 일깨운다.
서울경제 | 2018.11.16
- 사랑의 문맥이 행간의 여백에 향훈처럼 스며있어 읽는 즐거움을 준다.
충북일보 | 2018.11.20
- 1인 가구 시대 속에 가족의 이야기로 소중한 세상사는 이야기를 펼쳐내고 있다.
강원도민일보 | 2018.11.22
- 행복으로 가는 기억과 기록 이야기에 공감할 것이다. 기쁘거나 혹은 아프거나...
Queen | 2018.12.4
- 이미 행복한 사람들이 신기루 같은 행운을 찾아 시간낭비 하지 않기를 조언하는 책이다.
서울신문 | 2018.12.7